



두달 사이 다섯 건

연예계 잇단 ‘성추문’

박유천·이민기·이진욱 등 연달아 팬들 경악

지난 5월 개그맨 유상무(36)의 성폭행 미수 논란에서 시작된 연예계 성추문(35)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스타의 성폭행 피소라는 사건 자체가 충격적인데, 불과 두 달 사이 잇따라 다섯 명의 성추문이 터지자 경악을 넘어 혐의가 날 지경이다. 성추문에 휘말린 스타들은 일제히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폭행 미수 논란에 휩싸인 유상무나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박유천과 이민기, 이진욱,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이주노는 모두 피소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중 박유천과 이진욱은 자신을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박유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5일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며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유천과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 상관없는 성격을 성매매로 규정하고, 박유천에 대해서는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이 여성에게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다른 고소 여성 2명에게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현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보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사건에 앞서 발생한 박유천 사건과 연관 짓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진욱의 소속사 씨엔코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은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이진욱이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 했던 사람이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연인 사이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일단 성추문에 휩싸이면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스타는 이미지 추락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는 등 강경대응을 하는 것이지만, 성폭행 추문은 그 폭력성으로 인해 다른 스캔들에 비해 스타에게 훨씬 큰 치명타를 입히게 된다.

이번에 추문에 연루된 스타 중 이민기의 경우는 지난 2월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경우다.

이민기의 소속사 고오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4일 “이민기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던 것은 맞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시 여러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여러분께서 진술을 반복,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성추문 당사자의 팬들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팬이 아니어도 두달 사이 잇따라 터진 스캔들에 대중은 경악하고 있다.

주철환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연예인이 공인이나 아니냐 논란은 항상 있다. 그러나 그들이 스타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스타란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존재인데 스타들의 추문은 시대를 더 어둡게 만들어버린다”고 강조했다.

민아·나나·혜리 드라마서 존재감 과시

남궁민·전도연 등 연기 선생님 지원 받아

연기력 논란조차 피해가며 호평 받아

‘아이돌 출신 연기자’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마음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20대 여배우 기근에 시달리는 방송계에서 아이돌 출신 연기자들이 기회를 잡고, 능력을 증명하며 빈자리를 꼭 채우고 있다.

지난해 말 신드롬급 인기를 끈 tvN ‘응답하라 1988’의 여주인공인 걸스데이 혜리는 단숨에 지상파 주연을 맡았다. 또 같은 그룹의 민아는 케이블 드라마 경협조차 없이 단번에 지상파로 진출했다. 애프터스쿨의 나나는 tvN ‘굿 와이프’에서 전도연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는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존재감을 확실하게 했다.

훌륭한 연기 선생님을 곁에 뒀다는 공통점을 지닌 이들은 흔한 연기력 논란조차 피해가며 호평을 받고 있다.

◇“다 내려놔”는 각오, 진짜였네…민아=결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민아가 SBS TV ‘미녀 공심이’의 타이틀을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우려였다.

연기 경험이 일천하다고 할 만큼 제대로 연기를 해본 경험이 없는 그가 처음부터 지상파 드라마의 주연을 거머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상대역 남궁민마저 악역 이미지가 굳

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랬다.

전작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궁민이 악역 이미지를 벗어던질지조차 미지수인데 민아의 연기력이라는 걱정이 하나 더 늘어난 것.

그러나 제작발표회 때부터 “제 생명과도 같았던 아이 라인을 포기했다. 다 내려놔”는 당찬 각오를 밝힌 민아는 캐릭터와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러운 연기로 세간의 우려를 단번에 불식시켰다.

민아는 지난 연말을 두 못난 동생의 실수에, 취직 스트레스에 원형 탈모까지 생긴 공심이를 표현하기 위해 대부분의 출연 분량을 소위 ‘클레오파트라’ 가발을 쓰고 등장했다.

민아는 연기력에 대한 호평 세례에 연출을 맡은 백수찬 SBS PD와 남궁민의 개인지도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다.

◇‘칸의 여왕’ 앞에서도 밀리지 않는 매력, 나나=애프터스쿨의 멤버 나나는 tvN ‘인현왕후의 남자’(2012)의 중국판인 ‘상애천사천년’(相愛穿梭千年·후난위성TV)으로 중국에서 먼저 배우로 데뷔했다.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데뷔한 것이 당시에는 아쉬웠을지 모르지만 중국에서의 활동이 나나를 ‘칸의 여왕’ 전도연이 이끄는 tvN ‘굿 와이프’ 출연으로 이끌었다.

‘상애천사천년’ 촬영 당시 제작지원을 했던 이정효 PD가 함께 촬영했던 나나를 눈여겨 본 것. 이 PD는 ‘굿 와이프’ 제작발표회에서 “당시 나나와 한 장면을 촬영했는데 강하게 인상이 남아서 오디션 제안을 하게 됐다”고 했다.

4~5번의 오디션 끝에 ‘굿 와이프’에 합류하게 된 나나는 세상 무심하면서도 일 처리 하나는 완벽한 로컬 조사

원 김단 역을 맡아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매력을 내뽐고 있다.

큰 키와 늘씬한 몸매는 물론이고 진지한 눈빛까지 화제가 되며 찬사를 받고 있다. 전도연은 자신뿐 아니라 유지태, 김서형, 윤계상, 김태우 등 쟁쟁한 배우들이 등장하는 이 드라마에서 나나가 큰 위화감 없이 녹아들게 하려고 따로 만나 연기를 가르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응답’ ‘따따라’…다음 행보 궁금해지는 혜리=tvN ‘응답하라 1988’에서 ‘연기술’을 향한 편견을 정면 돌파했던 혜리는 지난달 종영한 SBS TV ‘따따라’를 통해 지상파 드라마 주연 자리에 올랐다.

‘응답하라 1988’ 캐스팅 당시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던 혜리는 언니에 치이고 동생에게 놀림 받으면서도 부모님에게 살뜰한 돌봄 ‘덕선’이 훌륭하게 연기해냈다.

쏟아지는 찬사와 함께 ‘응답하라 1988’ 종영 3개월 만에 어떤 이에게는 십수 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지상파 드라마 주연 자리가 주어졌다.

그러나 가족과 투닥거리며 첫사랑에 설레는 여고생 ‘덕선’이와 사연 많지만 밝디밝은 그린 역할은 비슷한 듯하면서도 난이도 차이가 있었고 기대 이하라는 평도 나왔다.

‘킬미 힐미’로 뛰어난 연기력을 입증한 지성이 이 드라마를 이끌었고, 혜리는 그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다만 걸음을 잡지 못했던 극 초반과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앞으로의 변신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육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결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00 KBC 모닝와이드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4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이웃집 찰스(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닥터365 05 세상발전 유레카
12	00 KBS 뉴스 12	00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재)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열린공간 토크 talk(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킹 특선 (방송의 진실)(재) 55 감성애니 하루(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TV블로그 공지락
2	00 연중기획-빛고을행복이카데미	00 KBS 뉴스타임 1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다시보는 대한민국 올림픽 명승부)	00 키즈 사이언스 5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3	0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45 이육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55 튜튼생활체조 (재)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독?독! 키즈스쿨 55 깨미탐험대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독 30 SBS 뉴스피리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건강문답 남도에 살아리리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공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수상한 휴가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뷰티풀 마인드>	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닥터스)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0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획 행	10 동상이몽 관찬아 관찬아
12	20 세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특별기획 해외결족드라마 <한여름 밤의 꿈>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45 스포츠 특선 MLB 핫토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 생생 영어	09:40 라이더 토크 부모 (못 말리는 우리 집 울보)	14:00 미술탐험대	19:30 EBS 뉴스
05:30 건강한 아침	10:30 한국기행 (재)	14:30 부릉부릉 부름미즈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5:40 성공시대 가능 한국인 (순결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다 귀공주 가공 박정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정제명의 오징어 죽은 조림과 김 속대기 무침)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류 오늘 <마리킨의 상어잡이>
06:10 EBS 특별기획 통찰 (마주의 어드벤처)	11:00 세계테마기행(재) 11:40 한국기행(재)	15:10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테마기행 <하늘 길을 오르다, K2 1부 카라코람이 품은 정원, 스카르두>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11월의 어드벤처)	11:00 EBS 정오 뉴스 12:00 시대공간 <스토리 그곳>	15:20 피터 래빗	21:30 한국기행 <개국따라 여름사냥 1부 아침가리굴에서 곰베껴까지>
07:30 로보카 폴리	12:10 시대상황 유치원 1~3 12:40 지식채널 e	15:35 꼬마기사 마이크	21:50 EBS 다크 프라임 <불멸의 마야 1부 옥수수 문명을 찾아서>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5:50 으랏차차 아이큐	22:45 달라졌어요
08:00 덩동덩 유치원 1~3 08:45 코코코 다코	13:40 출겨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츠(재)	16:00 캐니멀(재)	
09:00 캐니멀		16:30 코코코 다코	
09:30 원더볼츠		16:45 덩동덩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8일 (음 6월 15일 辛丑)

<p>子</p> <p>48년생 한 곳만을 보지 말고 다각적으로 살펴보자. 60년생 요령을 보인다면 효과가 커질 것이다. 72년생 소신을 갖고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결실을 맺는다. 84년생 원인을 잘 알아야만 충분히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9, 62</p>	<p>午</p> <p>42년생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격이다. 54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근본적인 것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이다. 66년생 처음에는 어려우나 점점 쉬워질 것이다. 78년생 반쯤을 보인다면 타격을 입으리라. 행운의 숫자 : 86, 21</p>
<p>丑</p> <p>49년생 성사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니 최선을 다해라. 61년생 예상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애를 먹었다. 73년생 진중해야만 견뎌낼 수 있으니라. 85년생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92</p>	<p>未</p> <p>43년생 합리적으로 안배해야만 만사가 흥통하리라. 55년생 작정하고 덤벼들겨 겨우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는 판국이다. 67년생 출저어 있는 것이 모이라. 79년생 기필코 지지치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08, 74</p>
<p>寅</p> <p>50년생 절대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62년생 귀한 옥이 진흙 속에 박혀 있으니 알아보는 이가 없도다. 74년생 돈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뭄을 잡을 것이다. 86년생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실행해라. 행운의 숫자 : 40, 51</p>	<p>申</p> <p>44년생 발전한 국면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있다. 56년생 말이 씨가 될 수도 있으니라. 68년생 내버려 두면 위험하니 즉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니라. 80년생 정도를 감내하면 만사가 뜻과 같이 펼쳐지리라. 행운의 숫자 : 59, 41</p>
<p>卯</p> <p>51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해야 실용적이다. 63년생 결정되었다면 신속하게 실행해야 하니라. 75년생 반쯤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7년생 진행과 정지 간에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7, 83</p>	<p>酉</p> <p>45년생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57년생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할 국량이 이르렀다. 69년생 예리한 관찰력으로 용의주도함이 요청된다. 81년생 앞방에는 잃고 곱데기만 남아 있는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56, 76</p>
<p>辰</p> <p>40년생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백번 낫다. 52년생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 해야 한다. 64년생 상부상조해라. 76년생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이다. 88년생 터무니없는 소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36, 28</p>	<p>戌</p> <p>46년생 충고에 따르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이니라. 58년생 매끄러운 마무리가 이미지를 좌우하겠다. 70년생 무리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 82년생 징후가 보여도 내버려두면 정념 약화될 게 뻔하다. 행운의 숫자 : 94, 43</p>
<p>巳</p> <p>41년생 희한한 날이다. 53년생 인간관계 속에서 허덕인다. 65년생 상징성을 이해해야 속 뜻을 파악할 수 있다. 77년생 대수구경 원한다면 따르는 것도 무방하다. 89년생 계획하여 왔던 바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39, 47</p>	<p>亥</p> <p>47년생 역할이 가중돼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9년생 형평성 있는 시각이 현명한 판단을 낳으리라. 71년생 외관은 보잘 것 없더라도 실속은 있으니라. 83년생 범위가 넓어지거나 나온 위치로 조정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5, 80</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